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2016년 1월 19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6년 1월 25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8.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등은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 분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월 분배금 지급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 산정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할 때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결정에 앞서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분배금 및 과세 관련하여 반드시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정보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적격등급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등 글로벌 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고, 글로벌 고배당주 등 글로벌 주식과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이자 수익과 중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분배금이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분배금관련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등과 관련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용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Global Multi-Asset Income(USD C Accumulation Class)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해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Global Multi-Asset Income(USD C Accumulation Class)는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의 하위펀드로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적격등급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등 글로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글로벌 고배당주 등 글로벌 주식 및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세부 운용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성있는 수익률과 지속가능한 배당금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주식, 글로벌 채권, 투자성있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채, 지방채, 국제기구 발행채권, 회사채 등 기타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적격등급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등 글로벌 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고, 글로벌 고배당주 등 글로벌 주식과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이자 수익과 중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전세계 다양한 투자 지역 및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투자성있는 수익원 발굴을 추구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지속가능한 높은 이익률을 가진 종목을 타겟으로 하며, 최대하락률이 높거나 차입비율이 높은 종목, 경기민감 종목 등은 제외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과 현금성 자산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해지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해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국가별, 섹터별, 자산군별로 유연하게 투자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여 운용되며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비교지수 또는 참조지수가 없으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에 앞서 투자 판단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멀티에셋 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다양한 투자 지역 및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투자신탁의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 선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운용 과정에서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자산군에 대해 이뤄진 자산배분에 따른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적격등급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등 글로벌 채권과 글로벌 고배당주 등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상당한 위험성(채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 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증권의 가격 변동, 금리, 환율 등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내외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이 더 심하므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 국제 경제전망, 금리변동, 환율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변화, 채무불이행 등 개별기업의 다양한 고유위험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등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하이일드 채권(통상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등을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의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되어 통상 더 높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수반합니다. 발행자 등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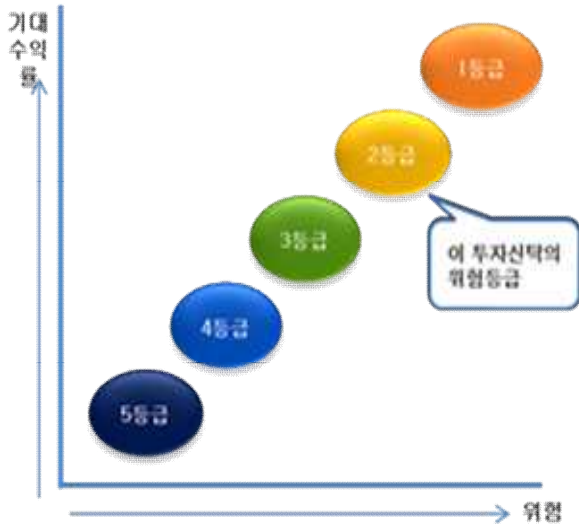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을 투자함에 따라 관련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자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거래상대방 부재등의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통화관련 환위험 회피 도구가 유효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위험 회피가 곤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요인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역내 위안화로 표시되는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외환관리 결정에 따라 그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 중지 또는 지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위험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해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의 일부로 이머징마켓 채권등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법률, 경제,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이 투자신탁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p>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 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등은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 분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월 분배금 지급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p>

	과세이익 산정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할 때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속)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계속)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명시한 분배금 지급방법에 의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으로,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해 실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결정에 앞서 상기의 분배금 및 과세 관련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1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비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주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투자적격등급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등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고, 글로벌 고배당주 등 글로벌 주식 및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5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 경제 등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특히 하이일드채권 등의 변동성 등에 따른 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이해하며,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매월 분배금 수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 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 등은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 분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5.15 현재)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기준)	
장정주	1978	책임 운용역	10	1조 4,263억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 동양선물 - 슈로더투신(2005.7 ~) - 운용경력 7년 - 서강대 경영학 학사, CFA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2014년 6월 10일자로 팀(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도 단독운용인력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용인력 최근 변동 내역 상세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Aymeric Forest	책임운용역 멀티에셋 펀드매니저	- (현)멀티에셋 펀드매니저 및 글로벌 자산배분위원회 위원(현) - 2011년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런던 본사) 입사
Iain Cunningham	부책임운용역 멀티에셋 펀드매니저	- (현)멀티에셋펀드 매니저, 전략적 투자그룹 멀티에셋위원회 위원 - 2007년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런던 본사) 입사

주1) 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14.05.16 ~15.05.15	최근 2년차 13.05.16 ~14.05.15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펀드	2.45	5.61	-	-	-

주1) 참조지수: 없음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주1)납입금액1.0%이내 (선취) 	

주1)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05	0.7	0.04	0.02	0.0081	0.8181	1.6690	0.0011
C	0.05	1.0	0.04	0.02	0.0069	1.1169	1.9677	0.0010
주 6) C-e	0.05	주 6) 0.5	0.04	0.02	0.0056	0.6156	1.4664	0.0011
F	0.05	0.05	0.04	0.02	-	0.16	0.16	-
V (변액 보험)	0.05	0.04	0.04	0.02	-	0.15	0.15	-
I	0.05	0.3	0.04	0.02	-	0.41	0.41	-
W	0.05	0.00	0.04	0.02	-	0.11	0.11	-
S	0.05	0.22	0.04	0.02	0.0071	0.3371	1.1879	0.0012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종류형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3.12 ~ 2015.03.11]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3.12 ~ 2015.03.11]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6)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 [연간 0.97%]을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7) 상기 도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미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과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보수를 단순 합산한 총보수만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 8) 온라인 전용 종류 C-e의 판매회사보수는 아래와 같이 정률식 인하 적용:

a. 연 0.60% (펀드최초설정일~2013년 12월 31일)

b. 연 0.50% (2014년 1월 1일~)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269	621	997	2,050
	C	202	623	1,070	2,310

C-e	150	467	806	1,763
F	116	361	625	1,380
V(변액보험)	115	358	620	1,369
W	88	275	479	1,064
I	119	370	642	1,415
S	122	379	657	1,447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표(누적)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 [연간 0.97%]을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와 종류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온라인 전용 종류 C-e의 판매보수는 상기와 같이 정율식으로 인하되며, 본 보수 및 비용 예시는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판매보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 5) 종류S의 경우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6) 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종류 투자신탁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분배금

(1) 분배금 지급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1개월 단위(분배시기 및 주기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 이라 합니다)으로 분배합니다.
 - ① **분배금:** 이 집합투자기구의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 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최초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합니다. 다만,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 ③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업자가 수령하는 날 이후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월분배금 지급에 대한 설명 예시

월 분배금은 상기 분배금 지급방법에 의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으로,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 투자자의 매입시 기준가격이 1,100원이었고, 한달 뒤 기준가격이 1,050원으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평가액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월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당해 투자자로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투자원본에서 분배금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사례 2)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투자자의 매입시 기준가격이 950원이었고, 한달 뒤 기준가격이 980원으로 상승한 경우, 투자자는 평가액상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투자자로서는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께서는 필요한 만큼 수익증권의 일부를 환매청구하여 월분배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분배금 지급연기 또는 지급중단

-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등(다음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분배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②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③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 ④ 대량환매 발생, 장기운용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지급재개의 뜻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연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분배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 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지급중단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등은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 분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월 분배금 지급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의 산정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할 때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명시한 분배금 지급방법에 의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으로,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해 실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결정에 앞서 상기의 분배금 및 과세 관련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D)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환매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제 8 영업일(D+7)	제 9 영업일(D+8)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2014.03.12 - 2015.03.1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 기(2013.03.12 - 2014.03.1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법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15.03.11)	(2014.03.11)	
운용자산	7,701,175,697	7,566,160,244	
증권	6,608,430,769	7,196,962,169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092,744,928	369,198,075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203,093	153,806,271	
자산총계	7,701,378,790	7,719,966,515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167,158,768	269,028,858	
부채총계	167,158,768	269,028,858	
원본	7,687,684,365	7,527,524,116	
수익조정금	62,538,508	63,520,307	
이익잉여금	-216,002,851	-140,106,766	
자본총계	7,534,220,022	7,450,937,657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14.03.12 - 2015.03.11)	(2013.03.12 - 2014.03.11)	
운용수익	328,676,341	274,375,777	
이자수익	7,187,941	9,339,504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321,488,400	265,036,273	
기타수익	334,269	2,020,695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383,180	914,120	
당기순이익	328,627,430	275,482,352	
매매회전율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